

2016년 12월 14일, 표선면 가시리 한신화씨 댁, 송정희 조사.  
한신화(여, 1921년생, 표선면 가시리)

**[제보자]** 도체비, 요 동네 사름이 죽어빚어. 이젠 저 당낭빚디 가그넝에

“제 얻영 먹영 오라.”

“예.”

갈치 하나 끌레기 헤영 썬 제숙으로

“이거 아전 가그넝에 식게 얻어 먹영 오라.”

“예.”

요디 마저리동산이렌 헐디 있어. 가단 보난 도체비가 난 막 돌아댕긴 거라 도체비가 난

“하이고 이거 이놈이 도체비 저녁에 내 하나 죽여야 허지.”

제숙 싸 가진 건천으로 싸 준 걸로 막 두들렸어.

**[조사자]** 도체비를?

**[제보자]** 도체비를. (웃음) 도체비가 아니고 불난디라. 불난디. 불난디 글로 놀아댕기고 절로 놀아댕기곡. 짓벌정헤게시리 놀아댕기난, 그걸 도체비엔 그 끌레기 싸준 걸로 짓두드리당 보난(웃음) 궤기도 어디사 간디 끌레기만 손에 쥐어쥔(웃음). 도체비 하나 도체비 하나 잡지도 못허영. 불난디만 돌아댕기당 그냥 제 얻어 먹으레 가난(웃음)

“허, 집이서 제숙도 아니 보내연?”

영 허난(웃음)

“갈치 하나 끌레기에 싸 준 아버지가 싸 주언 당낭빚디 강 식게 얻어 먹언 오렌 헐 오단 보난 막 도체비가 쳐 난 돌아댕기난 그거 허연 막(웃음) 하나 잡젠 두드리난 보난 궤기도 었어.(웃음) 어디 간 줄 몰르곡 도체빈 잡지 못허곡 헤연젠 그냥 오랏수다.”(웃음)

경 현 도레가 있어.

- 핵심어 : 도체비, 당낭빚, 식게, 제숙, 갈치, 불난디